

## (2017. 3. 18 시행) 경찰공무원 기출문제 [국어 해설]

[안 한 섭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http://www.okpass.com)

### 1.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시계 [시계/시계]
- ② 문법 [문뺨/뭉뺨]
- ③ 읊고 [읍꼬]
- ④ 되어 [되어/되어]

정답 ②

해설: 문법은 [문뺨]으로 발음해야 한다.

### 2.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 ③ 음절 초에 ‘ㄱ’, ‘ㄷ’, ‘ㅃ’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정답 ④

해설: 소유 중심의 언어는 영어식 표현이다. 우리말은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가령, 영어에서는 “사랑하는 처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사랑하는 처자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 ‘평음-경음-격음’
-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 첨가어
- ③ 음절 초에 ‘ㄱ’, ‘ㄷ’, ‘ㅃ’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 어두에 둘 이상 자음이 올 수 없다. ‘ㄱ’, ‘ㄷ’, ‘ㅃ’ 등은 각각 된소리이므로 한 개의 자음이다.

### 3.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탈락 :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② 첨가 :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 ③ 축약 :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 되는 현상이다.
- ④ 교체(대치) :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정답 ①

해설: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 실질 형태소 또는 단독으로 발음할 경우

### 4.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 첫사랑 | ㉡ 횃수 | ㉢ 등곶길 | ㉣ 소나깃밥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③

해설: ‘첫사랑’에서 ‘첫’은 본래 시옷이 있는 관형사이다. 따라서 사이시옷이 아니다. 또한 ‘소나깃밥’은 틀린 표현이다. ‘소나기밥’으로 써야 한다. 보통 때에는 얼마 먹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밥이라는 뜻이다.

5.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저 나뭇잎은 참 빨갳다.

- ① 저
- ② 은
- ③ 참
- ④ 빨갳-

정답 ④

해설: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용언의 어간이다.

오답 해설:

- ① 저: 관형사이므로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 ② 은: 보조사이므로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 ③ 참: 부사이므로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6.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① 제1항
- ② 제2항
- ③ 제3항
- ④ 제4항

정답 ③

해설: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외래어 표기에는 받침에 ㄷ을 쓰지 않는다.

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장]  
 불·휘 기·픈 남·근 바·락·매 아·니 : 월·씩  
 꽃 : 도·코 여·름 ·하·느·니  
 : 식·미 기·픈 ·므·른 ·갸·래 아·니 그·출·씩  
 : 내·히 이·러 바·락·래 ·가·느·니

[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ㅎ·산 漢水北·에  
 累仁開國·ㅎ·샤 卜年·이 : 궁 : 업·스시·니  
 聖神·이 : 니·스샤·도 敬天勤民·ㅎ·샤·스  
 더욱 구드·시·리아·다  
 ·님·금·하 아·락쇼·셔 洛水·에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ㅎ산’, ‘아락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고’가 있었고 ‘미드니잇가’는 상대 높임법의 ㅎ쇼셔체에 해당한다.
- ③ ‘-시/샤-’(주체 높임법), ‘-습/습/줍-’(객체 높임법), ‘-이/잇-’(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 조사 ‘아’는 ㅎ중성 체인 다음에 쓰였다.
- ④ 주격 조사 ‘이’는 ‘이’뿐만 아니라 ‘ㅣ’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에, 예’나 ‘이,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2017. 기출문제 해설

정답 ④

해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자음 뒤에는 ‘이’를, 모음 뒤에는 ‘ㅣ’를, ㅣ모음 뒤에는 생략되었고, 부사격 조사 ‘애’는 모음 조화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받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호산’, ‘아르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 인칭법 선어말어미인 ‘-오/우-’가 ‘定호산’, ‘아르쇼셔’ 등에 쓰인 것도 아니며, 지금도 사용되므로 틀린 말이다.
-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고’가 있었고 ‘미드니잇가’는 상대 높임법의 호쇼셔체에 해당한다. →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는 의문사가 있으므로 ‘고형’으로 끝나야 하므로 틀린 말이다.
- ③ ‘-시/샤-’(주체 높임법), ‘-습/습/줍-’(객체 높임법), ‘-이/잇-’(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 조사 ‘아’는 높중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 존칭 호격 조사는 ‘하’이다. 높중성 체언과 관계가 없는 말이다.

8.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吾勝不喻慙勝伊賜等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	
花勝 折叱可獻乎理音如	고졸 것거 바도림다
㉡ ㉢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향찰은 실질 형태소는 훈차, 형식 형태소는 음차를 했으므로 ‘것거(꺾어)’라고 한 ㉣의 절(折)은 훈차임을 알 수 있다. 밑줄 친 한자를 읽으면 다음과 같다. 賜: 줄 (사) 勝 소리 울릴 (힐) 折 꺾을 (절) 可 옳을 (가)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은 <u>출문장과</u> <u>결문장</u> 으로 나뉘며, <u>결문장</u> 은 다시 <u>이어진문장과</u> <u>안은문장</u> 으로 나뉜다. <u>이어진문장</u> 은 두 개의 <u>출문장</u> 이 <u>대등한 자격</u> 으로 이어지는 ㉠ <u>대등하게 이어진 문장</u> 과 <u>앞의 출문장</u> 이 <u>뒤의 출문장</u> 에 <u>종속적으로 연결되는</u> ㉡ <u>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u> 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

- ① ㉠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 ② ㉠ :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 ③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 ④ ㉡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정답 ①

해설: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는 선후 관계가 명확하여 문장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0.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2017. 기출문제 해설

정답 ②

해설: ②번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된 맞는 문장이다.

오답 해설:

-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부당하게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경우이다.
-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 문장 성분(환경에) 생략
-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는 않으므로 ‘반드시’를 ‘절대로’ 고친다.

1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달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① ㉠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 ② ㉡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 ③ ㉢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 ④ ㉣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정답 ④

해설: ㉣은 반짝이는 옹기전같이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12.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르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烏)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2017. 기출문제 해설

- ① 표현 기교가 뛰어난 작품으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 ② 기과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그의 높은 덕을 기리고 있는 작품이다.
- ③ ㉠에서 화자는 지금은 없는 기과랑의 자취를 찾으려 슬퍼하고 있다.
- ④ ㉡에서 화자는 기과랑의 높은 인품을 잣나무 가지와 눈에 비유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눈’은 ‘시련’을 비유한다.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사또 들어가 단좌(端坐)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洋洋)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 저분,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라도 잠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韻)을 낼 제,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제 가기 무렴(無廉)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政體)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뿔싸, 일이 났다.’

- ① ㉠ : 잔치에 어울리는 비교적 빠른 장단을 일컫는다.
- ② ㉡ : 언어유희적 표현에 의해 해학성이 나타난다.
- ③ ㉢ :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 ④ ㉣ : 운봉은 걸인이 어사또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진양조’는 판소리 장단 중에서 가장 느린 장단이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15)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찌면 글썸……, 내 원! 신세 간 데 없지요.

자, 십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身分)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가지굴량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짚검볼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양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해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수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14.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씬.
- ② ㉡ : 더할 수 없이 매우 가난함.
- ③ ㉢ : 끈기가 있고 모질.
- ④ ㉣ :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

정답 ③

해설: ‘칙살스럽다’는 하는 짓이나 말 따위가 잘고 더러운 데가 있다는 뜻이다.

15.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판소리 사설을 차용하여 풍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소설 속 관찰자가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결과적으로 긍정적 서술자가 부정적 인물인 아저씨를 비판한다.
- ④ 현실적 삶의 방식과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정답 ③

해설: 채만식의 소설 ‘치숙’이다. 이 작품은 부정적인 서술자(나)가 긍정적인 인물인 아저씨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작품 제목인 반어적인 소설이다.

1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환웅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이다.-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고 부르니, 이분이 곧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의 삼백예순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教化)하였다.

- ㉠
- ㉡



2017. 기출문제 해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정답 ④

해설: 매천 황현의 '절명시'이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금수도 슬피 울고 산하도 쩡그리네. 무궁화 세상은 이미 가라앉았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옛날을 회고하니 인간 세상에 식자인(지식인)으로 살기가 어렵구나”.

따라서 나라가 망하여 한탄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①번은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 ②번은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게 사는 상황, ③번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효심을 나타낸 것이다.

19.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경 머루 먹듯 :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취함.  
② 재미난 끝에 범 난다 : 즐거운 일을 찾아 계속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  
③ 깻묵에도 씨가 있다 :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물건에도 제 속은 있음.  
④ 가물에 돌 친다 : 가물에 도량을 미리 치워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정답 ②

해설: '재미난 끝에 범 난다'는 「1」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ㄴ오래 앞으면 새도 살을 맞는다. 「2」 지나치게 재미있으면 그 끝에 가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김을 이르는 말이다.

20. 토론에서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련 자료, 주변 상황, 관점 등을 검토하여 논제를 이해한다.  
②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쟁점을 찾아 핵심 쟁점과 하위 쟁점을 정리한다.  
③ 차이를 극복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④ 주장의 전제나 논거를 검토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정답 ③

해설: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를 극복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